

[기획] >> 3면
우리학교 브랜드

[기획] >> 4면
총장 선출 제도 변경

[학술] >> 9면
아이돌 인권 문제

[인물] >> 12면
정신동 교수를 만나다

총장 선출 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의 총장 후보 선출 제도 변화 시도는 우리학교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총장 선출 제도의 역사△격동의 휘말린 총장 선출 제도△현행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남우현 기자 07woohyun@hufs.ac.kr

우리학교, 2024 튀르키예 정부 초청 국제여름학교 개최

우리학교는 지난달 11일 서울캠퍼스 대학본부 11층 중회의실에서 '2024 튀르키예 정부 초청 국제여름학교 학습보고회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튀르키예 문화원과 튀르키예 해외동포청이 공동 주최한 이번 국제여름학교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한 달여간 튀르키예 현지에서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양국 간의 학문적 및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학습보고회 및 시상식에선 국제여름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습 성과 공유와 우수 사례 시상도 진행됐다. 오종진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학과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와 튀르키예 간의 오랜 우정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중요한 기회였음을 강조했다. 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튀르키예의 언어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글로벌 시각을 넓힐 수 있었다"며 "이는 양국의 오랜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춘식 우리학교 부총장은 축사에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이와 같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거둔 학문적 성과와 경험이 양국 간 공공외교와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며 "앞으

로 다양한 학습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고 전했다. 살리흐 무랏 타메르(Salih 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 대사는 학생들의 열정과 관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대사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만간 학생들의 대사관 방문 행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스마흐무트 에르탄 고크멘(Mahmut Ertan Gökmen)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 세르칸 도안(Sercan Doğan)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공보참사관, 스이난 아지르 바이잔 학과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을 축하하며 "양국 간의 교육적 교류가 앞으로도 활발히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는 김요섭 씨에게 돌아갔다. 이어 최우수상은 안혜원 씨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황승재 씨가 수상했다. 수상 학생들은 튀르키예 현지에서 경험한 학습 과정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소중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백세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 2017-24 워크숍' 개최

지난달 11일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인문한국플러스사업단(이하 HK+사업단)은 코트야드 메리어트(Courtyard Marriott) 남대문에서 '우리학교 인도연구소 HK+사업단 2017-24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우리학교 인도연구소가 HK+사업 종료에 맞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7년간 HK+사업에 협조해 준 협력 기관 및 참여연구자에 감사 표시를 표하며 향후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개최됐다. 1부 행사는 김찬만 사업단장(이하 김 단장)의 인사말과 김춘식 우리학교 부총장(이하 김 부총장)의 축사로 시작했다. 김 단장은 우리학교 인도연구소가 인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한국연구재단 등 협력 기관과 우리학교 연구산학협력단의 후원에 감사 표시를 표명하고 HK고원 연구소 구성원의 공로를 치하했다. 김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인도 연구소가 이룩해 온 역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향후 연구 협력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2부 행사는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 - 인도 지역연구의 세계적 거점 구축'이란 장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내외 연구 교류 활동 △연구 성과의 사회적 서비스 △연구 인프라 구축 △지역연구의 선도 활동 △지역전문가 양성으로 구성된 5대 전략사업을 발표했다. 또한 인도 인문학의 대중화를 실현하고자 설립한 지역 인문학센터 '간디아슈람(Gandiashram)'을 통해 전국 주요 지역에 운영해 온 인도 인문 교육 및 치유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보고했다. 참여기관과 구성원들은 소회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요섭 동국대학교 교수 △박영수 영월인도미술박물관 관장 △이준호 HK고수 △최종환 우리학교 명예교수는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 내에서의 인도학 저변 확대를 위해 헌신해 온 김 단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분	2차 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접수	원서접수: 2024.11.05(화) ~ 11.14(목) 서류접수: 2024.11.05(화) ~ 11.15(금)
전형일	2024.11.30(토)
합격자 발표	2024.12.13(금) 예정

* 온라인 원서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화위 프로그램 운영(국제화, 한국화, 중남미화, 유럽연합화)과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 취득)
다.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통문 들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 과정(4학기)

학과(전공)	학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분	2차 모집
원서접수 및 서류접수	원서접수: 2024.11.05(화) ~ 11.14(목) 서류접수: 2024.11.05(화) ~ 11.15(금)
전형일	2024.11.30(토)
합격자 발표	2024.12.13(금) 예정

* 온라인 원서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 대학원의 교육기반인 지역학 전문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가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명의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MBA]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주간·Evening·주말)
2025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안내

■ 입학문의: 경영대학원 주간, 주말 사무실 02)2173-2399
Evening 사무실 02)2173-2408
■ 교문: 지하철 1호선 외대입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1. 전형 일정

■ 일반전형

구분	일시 / 기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터넷 작성)	2024.10.28(월) 09:00 ~ 11.29(금) 22:00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일 24시간 작성 가능
입학지원서 및 서류 제출	2024.10.28(월) 09:00 ~ 11.29(금) 22:00	경영대학원 사무실 (사이버관 502호)	유선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소용됩니다.
면접 전형	2024.12.7(토) 10:00	사이버관	면접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사전 안내)
합격자 발표	2024.12.13(금) 14:00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biz.hufs.ac.kr	
합격자 등록	2024.12.16(월)~12.20(금)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특별전형1

구분	일시 / 기간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터넷 작성)	2024.12.9(월) 09:00 ~ 2025.1.3(금) 22:00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예약일 24시간 작성 가능
입학지원서 및 서류 제출	2024.12.9(월) 09:00 ~ 2025.1.3(금) 22:00	경영대학원 사무실 (사이버관 502호)	유선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소용됩니다.
면접 전형	2025.1.11(토) 10:00	사이버관	면접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변동 시 사전 안내)
합격자 발표	2025.1.17(금) 14:00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biz.hufs.ac.kr	
합격자 등록	2025.1.20(월)~1.24(금)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모집학과	전 공	모집인원	
경영학사 (MBA)	경영학과 (Full-time MBA, 주간 수업)	재무/회계 인사/조직 국제경영 경영정보 마케팅	○○명	
	경영관리학과 (Evening MBA, 저녁 수업)	경영 국제경영		
	경영금융학과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경영 금융		
	글로벌경영학과 (주말 수업)	글로벌경영		

3. 지원 자격

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능력시험(TOPK 또는 KLPT)3급 이상 소지자.
단, 한국능력시험 3급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자.
※ 대학의 전공 학과와 다른 전공 분야도 지원할 수 있음.

4. 전형 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학부 성적: 20%, 면접 및 서류 평가: 80%

5. 입학 장학금

외대동문(사이버)외대 포함, 군무원, 군인공제회 직원, 공무원, 각급학교 교직원에게 입학 시 첫 학기 1회에 한하여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

군인은 4개월간 동안 매학기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하며 매학기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6. 접수방법 및 문의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biz.hufs.ac.kr) : 경영대학원 - 입학안내

연락처 이메일 : hufsbmba@hufs.ac.kr
전화번호 : 주간과정(02-2173-2399) 야간과정(02-2173-2408)



2024 대동제, 지난날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선 지난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가을 대동제인 퀸쿠아트리아(QUINQUATRIA)가 개최됐다. 해당 축제는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축제 일정이 5일 미뤄졌다. 우리학교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해당 축제를 준비하며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무한한 잠재력과 이를 실현할 추진력을 기반으로 대학 사회에 ‘QUINQUATRIA’를 새기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축제의 첫 날인 지난달 7일엔 △가요제△동아리 부스 운영△아티스트 공연△푸드트럭 행사△학우 공연(Twilight)이 진행됐다. 가요제는 외대교육방송국(FBS)의 주최 하에 진행됐다. 당일 연예인 공연에는 △다이내믹듀오(DYNAMICDUO)△유니스(UNIS)△창모가 무대를 꾸몄다. 창모는 “7년 전에도 한국외대에 온 적이 있다며 7년 만에 한국외대에 공연을 하게 돼 정말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한국외대는 우리 어머니의 모교다”며 “가족과 연관된 학교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이날 공연을 즐긴 A 씨는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공연을 카메라에 전부 담아내려고 생각했으나 공연이 시작되고 아티스트와 학우들이 하나 되어 뿜어내는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 끝날 때까지 정신없이 즐기만 했다”고 밝혔다.

둘째 날에도 전날의 활기를 이어받아 축제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동아리 부스 운영과 푸드트럭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엔 우리학교 설캠 응원단 아이기스(AEGIS)와 함께하는 응원제도 진행됐다. 아이



▲아이기스 공연 모습

기스는 ‘내일을 위해’와 ‘외대여 세계로 세계여 외대로’ 등의 응원곡에 맞춘 안무를 선보이며 축제 현장의 분위기를 강렬하게 달궜다. 공연을 관람하던 학우들 또한 사전에 공지된 응원 구호에 맞게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모두가 하나가 돼 화합의 장을 펼쳤다. 둘째 날 아티스트 공연에는 트리플 에스(TRIPLE S)와 크러쉬(CRUSH)가 방문했다. 트리플 에스는 ‘걸스네버다이

(Girls Never Die)와 ‘라이징’(Rising) 등의 노래를 선보였고 크러쉬는 △‘미안해 미워해 사랑해’△‘뷰티풀(Beautiful)’△‘러쉬아워(Rush hour)’을 부르며 축제를 한층 더 화려하게 장식했다.

부스에는 각 과의 특색을 알리는 각종 행사가 준비되었다. 특히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이색적인 이름과 모양의 음식 및 체험 활동이 이목을 끌었다. 아랍어과는 두바이 와플(Waffle)을 판매해 많은 학우의 관심과 흥미를 자아냈다. 두바이 와플은 이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두바이(Dubai)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아랍어과에서 자체 제작한 음식이다. 이에 대해 행사에 참여한 마채운(아시아·이란어 22) 씨는 “여러 과가 각자 컨셉에 맞게 부스 이벤트를 진행하고 음식을 판매해 이를 즐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과의 특색을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이번 해는 개교 70주년을 맞이한 해인 만큼 그 어느 해보다 많은 학우들이 축제에 관심을 가졌고 총학 또한 축제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축제 때의 열기와 에너지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강렬하고 활기찼다. 이번 대동제는 우리학교가 지나는 지난 70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또 다른 미래를 비추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최성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교수,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십자장교 공훈훈장 수상

지난달 23일 최성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교수(이하 최 교수)가 우리나라를 국민 방한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하 두다 대통령)으로부터 십자장교 공훈훈장을 수상했다. 서울 성북동 삼청각에서 개최된 수여식에선 최 교수를 비롯해 △안제이 바라노프스키(Andrzej Baranowski) 수사△야로스와프 카민스키 팔로티(Jaroslav Kamiński) 수도회 신부△요안나 호사냐(Joanna Hosaniak) 북한인권운동가 총 네 명이 우리나라와 폴란드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 중 최 교수는 가장 높은 품계의 훈장을 받는 영예를 누렸다. 두다 대통령은 수훈사를 통해 “폴란드어와 폴란드 문학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리고 폴란드어 교육과 후학 양성을 위해 헌신한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훈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의 훈장 수훈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12년 폴란드 정부로부터 십자기사 공훈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두다 대통령은 특히 폴란드 문학 번역가로서 최 교수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두다 대통령은 △리샤르드 카푸시친스키(Ryszard Kapuściński)의 ‘헤로도토스와 여행(Pordroze z Herodote)’△비톨드 고프브로비츠(Witold Gombrowicz)의 ‘코스모스(Kosmos)’△스타니스와프 렘(Stanisław Lem)의 ‘솔라리스(Solaris)’



▲왼쪽부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최 교수의 어머니, 최성은 교수, 아가타 두다 영부인 (출처: 전략홍보팀)

△헨릭 시엔키에비츠(Henryk Sienkiewicz)의 ‘쿠오 바디스(Quo Vadis)’ 등 폴란드 문학을 대표하는 40여 권의 책을 번역한 최 교수를 향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최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지난 30여 년간 폴란드 문학을 △공공부△교육△번역△연구하면서 항상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다”며 “뜨겁게 사랑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잘 알고 있는 덕분이다”고 밝혔다. 또한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제자들을 양성하고, 연구와 번역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교수는 국내 유일 학과인 우리학교 폴란드어과에서 지난 2007년부터 학과장을 역임하면서 우리나라와 폴란드 간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폴란드어 전문 인재를 육성해 왔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에서 폴란드어 책임교수를 맡아 폴란드어 표준교재 및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폴란드어 학습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최소윤 기자 09sooyoon@hufs.ac.kr

사하-한국학교 방문단 우리학교 방문,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증진 기여

우리학교는 사하(Sakha)-한국학교 설립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하공화국 한국학교 학생 9명과 인솔 교사 1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맞이했다. 이를 통해 우리학교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증진에 기여했다.



▲사하-한국학교 방문단, 우리학교 방문 (출처: 전략홍보팀)

우리학교를 방문한 사하-한국학교 방문단은 우리학교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를 돌아보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 중인 우리학교와 우리학교 국제학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방문단은 △강남역 △경동시장△경복궁 △롯데월드△트경계천 등을 둘러보고 △가야금 공연 감상 △사물놀이△한복 체험△K-pop 댄스 등 다양한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했다. 그뿐만 아니라 강릉에서의 강원도 문화 체험△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국박물관 방문△전주에서의 한옥마을 방문 및 템플스테이(Temple Stay) 등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대해 한국 사하친선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봉철 우리학교 교수는 “이번 방문은 사하공화국 학생

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했다”며 “우리학교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청소년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양국 간 교류의 배경은 지난 1990년대 초 강릉수 우리학교 명예교수가 처음 사하공화국과 맺은 인연에서 시작됐다. 더불어 지난 1994년에 설립된 사하-한국학교는 11년 제 러시아 정부 인준 정규 종합학교로서 매년 약 15명 내외의 학생 대

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협력을 지속해 왔다. 이번 해 사하-한국학교 설립 30주년을 맞이해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중단됐던 활동을 재개하면서 △국제학부△사단법인 한국 사하친선협회△우리학교 봉사동아리 KUSA△우리학교 유럽연구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사하-한국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폭넓게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 CUFS20 준공식 성료



▲CUFS 20 준공식 모습 (출처: 사이버한국외대)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9월 27일 사이버한국외대 제2교사 CUFS20 소강당에서 ‘사이버한국외대 CUFS20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정은 총장△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양인집 총동문회장△장지호 사이버한국외대 총장(이하 장 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4시 최서연 사이버한국외대 기획처장의 개식사로 시작된 준공식은 △경과보고△기념사△건설관계자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CUFS20이란 이름의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건물은 완성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다”며 “건립 부지 매입 단계에서 뜻을 함께 모아준 교수진을 비롯해 교육부 승인과 실제 건설까지의 모든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간 담당 교직원들과 건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CUFS20이 개교 20

주년을 맞는 사이버한국외대의 새로운 도약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장 총장은 “70년 전 김홍배 동원육영회 설립자가 인류 문화를 선도할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마련한 이문동의 배움터에 오늘 사이버한국외대가 새로운 20년을 시작하며 융합 교육을 선도할 새로운 배움터인 CUFS20을 세운다”며 “CUFS20은 사이버한국외대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융복합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고 안전한 공정으로 CUFS20 준공에 만전을 다한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남찬우 참빛포워텍㈜ 대표△송유찬 ㈜코원건설 대표△지승현 ㈜유엔테크 대표△한중훈 ㈜한중물도시간축전축사사무소 대표△장승호 사이버한국외대 건설본부장△최서연 사이버한국외대 기획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노고를 치하했다.

CUFS20은 지하 2층 및 지상 9층의 연면적 2979.07㎡ 규모로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물론 크리에이티브(creative) 스튜디오나 셀프(self) 스튜디오 등 미디어 창작 공간까지 갖춘 최첨단 시설이다. 또한 CUFS20의 일부 층에는 사이버한국외대와 산학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준오헤어와 스타벅스(Starbucks) 등 상업시설이 임집해 학교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 복지를 위한 교육재원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우리학교 브랜딩 전략, 세계로 향하는 발판

지난 9월 우리학교는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 대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우리학교 마스코트(Mascot)인 부우가 '부우(Boo)'가 큰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브랜딩(Branding)은 대학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학 브랜드화'는 필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학의 이

미지를 구축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이에 우리학교는 공식 마스코트인 부우를 활용하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 콘텐츠의 제작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우리학교 브랜딩 전략△우리학교 브랜딩 전략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우리학교 브랜딩 전략

우리학교는 △교표△마스코트△슬로건 등의 브랜딩을 활용해 대학 UI(University Identity)를 관리하고 있다. 교표의 'o'은 '외대'의 'o'으로 지구를 나타내며 참다운 인재를 온 세계에 배출한다는 포부를 상징하고 교표의 'c'은 '외대'의 'c'으로 신념의 문을 여는 열쇠를 상징한다.

우리학교 마스코트에는 부우이인 부우가 있다. 부우는 믿을 부(孚)와 도울 우(佑)란 한자 뜻을 지니고 있으며 '믿고 도와주는 외대인의 친구'란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부우는 지혜의 숲에서 태어난 하늘색 아기 부우이로 △진리 △창조△평화의 정신을 품고 있으며 세상의 다양성을 연결해 지혜의 길을 탐구하는 부우이란 설정을 지니고 있다. 이 캐릭터는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제공해 학교의 개성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더불어 부우는 대학의 각종 행사와 홍보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부우는 축제와 졸업식 등 우리학교 주요 행사에 활용돼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부우는 굿즈(Goods)로도 제작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란 슬로건(Slogan)을 통해 외부인들에게 우리학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일례로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우리학교 슬로건 문구를 메모지에 적어두고 공부를 이어가는 동기부여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학교의 또 다른 브랜딩 전략으로는 학교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SNS 콘텐츠 제작이 있다. 우리학교는 학내의 주요 소식·행사나 학생들의 생활 등을 인스타그램(Instagram)과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SNS 플랫폼을 통해 활발하게 알리고 있다. 특히 △사진 콘텐츠△학교와 관련된 각종 영상 콘텐츠△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해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는 학교 생활의 생동감을 전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우리학교 브랜딩 전략의 문제점

하지만 우리학교 '부우' 캐릭터의 활용도가 타 학교에 비해 저조하며 온라인 판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금재빈(중국·중언문 23) 씨는 "우리학교 굿즈가 타 학교들에 비해 종류가 적고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어야 쉽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학교는 부우 관련 상품은 서울캠퍼스 이문일공칠과 글로벌캠퍼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문구서점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학교 생협에 따르면 "공동구매물인 흡스샵(HUFS Shop)에선 의류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타 학교의 경우 마스코트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일례로 카이스트(KAIST)는 마스코트 캐릭터인 '넙죽이'와 관련해 △수건△수영모△입욕제△키홀더(Keyholder) 등 매우 다양한 종류의 굿즈를 출시해 왔다. 또한 카이스트 굿즈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에는 따로 굿즈 전용 배너(Banner)를 마련해 편의성을 더했다. 한편 숙명여대는 마스코트 캐릭터 '눈송이'를 이용해 카카오톡 이모티콘(Emoticon)을 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눈송이 인형을 따로 판매 중이다. 이화여대 역시 캐릭터 '곰돌이'를 삼입한 그립톡(Griptok)이나 애플펜슬(Apple Pencil) 스티커 등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여 외부인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위와 같은 학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코트 관련 상품을 판매해 마스코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학교의 브랜딩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의 경우 직접 이문일공칠과 생협 문구점을 방문하지 않는 이상 관련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외부인의 경우 우리학교의 굿즈와 같은 브랜

딩 상품을 구매하기 쉽지 않아 마스코트와 같은 우리학교 브랜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된다.

SNS 활용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83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24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482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384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학교와 인접한 경희대의 경우 154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47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우리학교는 128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와 32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주요 대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우리학교 교표



▲ 부우의 모습 (출처: 우리학교 홈페이지)

실시 SNS 상에서 우리학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낮은 것은 아니다. 실제로 유튜브 프로그램 '전과자의 한국외대 태국어과' 편은 499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해당 프로그램 내에서도 큰 관심을 끌었다. 또한 우리학교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릴스(Reels)는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 크리스마스 응원을 하는 영상으로 총 17개 언어의 인사법이 등장하며 113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해당 영상은 우리학교

가 가진 외국어대학교로서의 언어적 다양성과 글로벌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적인 콘텐츠에도 불구하고 우리학교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여전히 적은 상황이다.

◆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학교의 브랜딩 강화를 위해선 부우의 활용도를 높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부우는 우리학교의 여러 굿즈 및 행사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굿즈의 종류를 확장하고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재학생 할인 혜택이 주어지면 재학생들의 애교심을 고취하고 외부의 인지도를 높이며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SNS 콘텐츠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우리학교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활발히 운영 중이지만 앞서 언급했듯 타 학교들의 SNS 계정과 비교했을 때 구독자 및 팔로워 수가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SNS 채널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콘텐츠의 비율을 높여 보다 활발한 소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타 학교들이 추진하는 것처럼 SNS를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나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대학의 브랜딩은 단순히 외부에 좋은 이미지를 심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해경 서울대학교 무역학 교수는 "대학홍보 요인이 대학 이미지 형성 및 대학지원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대학 이미지 형성 및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홍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즉 우리학교 본래의 가치인 언어적 다양성과 글로벌 이미지를 고려한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브랜딩은 기업 브랜딩과 다르게 이익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긍정적 이미지의 형성과 학생들 사이에서의 유대감 강화라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만의 특색 있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총장 선출 제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는 격동의 역사를 거쳐 변화해 왔다. 일련의 역사는 이 사회 주도의 간선제에서 '제2건학 선언'을 거쳐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지금의 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2일부터 시작된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의 총장 후보 선출 제도 변화 시도는 우리학교 전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총장 선출 제도의 역사△격동에 휘말린 총장 선출 제도△현행 제도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총장 선출 제도의 역사

1954년에 창립자 김흥배에 의해 설립된 우리학교는 우리나라 최고의 '외국어대학교'란 정체성과 함께 외국어는 물론 △공학△사회과학△인문학△자연과학까지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학교는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주도한 수많은 리더를 배출한 학교로 널리 인식됐다. 실제로 바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우리학교에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한국외대는 대한민국의 리더들을 배출해왔고 이들은 한국이던 현대의 기적을 일궈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엔 어두운 과거도 존재했다. 1998년까지 △김흥배△그의 아내 이숙경 동원육영회 이사장(이하 이 이사장)△이숙경의 조카인 박승준 전무이사(이하 박 이사)로 대표되는 창립자 가문은 학교 법인의 이사를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하며 우리학교의 주도권 또한 장악했다. 이러한 창립자 가문은 여러 문제점을 일으켰다. 일례로 1998년 5월 12일 자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박 이사는 학교 예산 3억 2,800만 원을 개인용으로 사용했다. 파행적인 이사회 운영도 지적됐다. 실제로 같은 해 6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당시 박 이사는 5년 동안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도 소집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꾸며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러한 상황 속 당시 우리학교의 △교수△노조△학생은 "박 이사 세력이 전횡과 비리를 일삼았으며 우리학교를 정채와 쇠락의 길로 몰고 간다"며 '공영 재단 건설'을 목표로 시위를 벌였다. 이에 교육부는 이 이사장 및 박 이사 2명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법인이사 7명의 사표를 받기로 하며 관선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1998년 10월 23일 △교수△노조△학생으로 구성된 3주체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법인△학교의 분리운영△학교 운영의 민주화△학교 발전 계획 마련 등의 약속을 담은 '제2건학'을 선언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건학 선언문'이 담긴 기념물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프)에 설치했다. 해당 기념물은 지금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2건학 선언' 이후 2004년까지 우리학교는 관선이사제도에 의해 운영됐다. 이러한 관선이사제도에 하에서부터 2020년까지 우리학교는 교수협의회에서 득표순으로 순위가 정해진 2명의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이를 이사회에 전달하면 최종적으로 이사회가 2명의 총장 후보 중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학생 및 직원들의 총장 투표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0월 31일 자 뉴스핌 기사에 따르면 2019년에 학생들은 총학을 중심으로 총장 선출에 대한 투표권을 요구했고 결국 그 해 8월 △교수협의회△양캠프(이하 양캠프) 총학△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은 회의를 통해 '총장선출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향후 발족할 것을 논의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교수협의회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2020년 들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양캠프 총학은 활동을 진행했다. 2020년 5월 양캠프 총학은 전체교수회의가 진행되는 우리학교 오버마홀에서 학생들의 총장 선출 투표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으며 이외의 여러 노력 끝에 개선위가 개최됐다. 개선위 결과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이 발의되며 △교수 90%△직원 5%△학생 5%의 총장 후보 선출 투표 비율이 정해졌다. 이로써 현행 제도가 시작됐다.

이처럼 우리학교 총장 선출 제도가 차츰 발전하는 동안에도 창립자 가문의 여러 구성원은 다시 재단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7월 13일 우리학교 홍보실에서 발행한 'GLOBAL 외대'에 따르면 창립자의 조카 김중국 전 우리학교 고문은 제2건학 선언 직후였던 1998년에 제2건학 선언 이전 선출된 안병만 당시 총장과 창립자의 아내인 이숙경 전 이사장의 권유에 의해 다시 학교로 복귀해 근무했다. 한편 2004년에 관선 이사 체제 종식 후 새로운 이사 체제의 출범 과정에서 창립자 가문 추천에 의해 이사가 된 창립자의 조카 김중철 현 이사장(이하 김 이사장)은 2016년부터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지난 2021년에 이사장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난 1월 16일 제1차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3연임에 성공했다. 이로써 김 이사장의 임기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상의 역사적·상황적 맥락은 최근 총장 선출 제도 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을 학내 구성원들이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격동에 휘말린 총장 선출 제도

지난 6월 25일에 개최된 제6차 이사회 회의에서 동원육영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선 △간선제△직선제 단점△총장 선출 규정 마련 등이 논의됐으며 총장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동원육영회는 지난 7월 12일 '총장 후보 선출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란 제목의 공문을 △교수협의회장△양캠프 총학 회장△직원 노동조합장△총동문회장에게 일괄 발송했다.

동원육영회는 해당 공문에서 "현행 총장 후보 직선제하에선 유능한 외부 인사를 후보로 영입하기 어렵다"며 "현행 제도가 후보자의 능력과 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 마디로 현행 제도가 유능한 총장 후보를 선출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동원육영회는 총장 선출 제도를 크게 직선제와 간선제로 구분하며 간선제를 공모제라 칭하고 동원육영회가 2명의 총장 후보 최종 임명만 하는 것이 아닌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도 참여하는 제도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총장에 대한 임명권이 법령상 학교법인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총장 선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러

한 동원육영회의 공문은 학내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양캠프 총학은 동원육영회가 보내온 공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설캠프 총학은 이사회로부터 해당 공문을 받은 지 3일 후인 7월 15일에 △교수협의회△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프) 총학△직원노조에 공동 회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전송하며 빠르게 대응했다. 연이어 지난 7월 26일 양캠프 총학은 '이사장 김중철은 숭고한 학내 민주주의의 열매를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작성해 학내 게시판 및 인스타그램(Instagram) 공식 계정에 게시했다. 추가로 지난 8월 22일 양캠프 총학은 제7차 이사회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 앞에서 직선제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관련 카드뉴스 게시△자료를 제작 및 배포△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수협의회도 즉각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수협의회는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원육영회의 공문은 총장후보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의 표명이다'고 언급하며 총장후보 직선제 훼손 시도 중단 및 이사장 중임 제한 규정 복원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교수협의회는 글캠프 학생관 및 기숙사 건물 앞에 '총장선출 직선제 훼손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표어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에 대해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학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원육영회는 지난 8월 22일 제7차 이사회 회의에서 다시 한번 총장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해당 회의에선 "단과대학 및 대학원 등 학문 단위별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며 "지난 7월에 진행된 의견 수렴이 방학 중에 진행되어 시기적으로 오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7차 이사회 회의록에선 '직원노조의 설문 결과 이사회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상당수 직원이 찬성하였다'는 언급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직원노조는 외대학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 아니다"며 "교수협의회 차원의 규정



▲비대위 성명문 발표 및 이사장실 방문 장면 (출처: 설캠프 SNS)

이 아닌 공식적인 법인 정관 혹은 우리학교의 공식적인 규정으로 총장 후보 선출 절차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직원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우리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직선제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제도로서의 위상과 명분을 갖추고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동원육영회가 이처럼 지속적으로 총장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교수협의회△양캠프 총학△직원노조는 지난 8월 27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했다. 비대위는 설립과 함께 발표한 성명문에서 상술한 동원육영회의 공문에 대해 '총장 직선제 대신 간선제 도입을 통해 대학을 사유화하려는 법인의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설립된 비대위는 지속적으로 동원육영회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실제로 제4차 설캠프 총학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및 교수협의회 답변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 6명은 이사장실을 방문해 성명문을 직접 전달하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또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0일에 걸쳐 동원육영회에 두 차례 면담 제안 요청서를 보냈다. 교수협의회는 답변에 따르면 동원육영회가 학생 및 직원을 배제한 면담을 교수협의회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교수협의회가 이를 거절하며 우여곡절 끝에 동원육영회와 비대위의 면담이 오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동원육영회 이사장실 또한 외대학보에 "오는 12일에 비대위와의 면담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30일에 제8차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됐다. 해당 회의에선 먼저 비대위의 반대 성명서 발표 및 학내 구성원의 '강경한 분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구성원들의 성명서는 설득력이 미흡하고 현재 학교 상황과는 관계 없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사항 이다'며 '학교 발전을 위한 제안이 없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더불어 '구성원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소통 자체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회의에선 '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총장의 이번 국면에서의 역할 또한 담겼다. 더불어 '생각보다 반대 의견이 심한 구성원들과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한 불화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사장이 구성원들을 만나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위의 이사회와 비대위 간 면담은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해당 회의에선 '현재 학내 구성원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 절차(안)를 마련한 후 구성

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제안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일 동원육영회는 △각 단과대학 학장△각 대학원 원장△교수협의회장△양캠프 총학△직원노조△총동문회장 앞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선출 절차(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동원육영회가 수립한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선출 절차(안)'(이하 동원육영회 안)이 포함된 해당 공문에선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요청한다'란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동원육영회 안에 따른 총장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법인에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설치한다. 이러한 총추위는 △교수△동문△법인△직원△학생으로 구성하며 총 25인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구성단위가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음으로 총추위는 총장후보자 ○인을 현행과 달리 '무순위'로 법인에 추천한다. 이후 이사회가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고 이를 이사장이 임명하며 총장 선출이 마무리된다. 이러한 동원육영회 안이 제시된 가운데 비대위의 반응 및 대응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우리학교는 △교수△학생△직원이 직접 투표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현행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현행 제도의 핵심 기구임을 알 수 있다.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1인△부위원장 2인△총무 1인△교수협의회 평의원△학생대표 10인△직원대표 10인으로 구성되며 여러 명의 총장 후보 중 2명을 선출한 뒤 법인 이사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여러 명의 총장 후보 중 2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일단 총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거인은 △교원△직원△학생이다. 그러나 학생 및 직원의 1표와 교원의 1표는 파급력이 다르다. 규정에 따르면 각 선거인의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90%△학생 5%△직원 5%다. 이와 같이 학내 주체 간 서로 다른 투표 가치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총학과 직원노조는 반영 비율의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상술한 것과 같이 선출된 2명의 총장 후보들은 선거 결과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후보로 이사회에 전달되며 최종적으로 이사회에 의해 총장 당선 여부가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현행 제도를 직선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로 설캠프 총학은 지난 7월 24일 인스타그램(Instagram) 공식 계정에서 '총장 선거 제도가 아닌, 총장 후보 선출 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이 해당 게시물에서 '관례상 1순위 후보가 당선된다'고 밝힌 것과 같이 1순위 후보 대신 2순위 후보가 이사회에 의해 당선된 사례는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바 없다.

다음으로 총장후보 선출규정 개정안 제18조에 따르면 총장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후보자 1인마다 3,000만 원의 기탁금을 총장후보 선출위원회에 납부해야한다. 이러한 기탁금 제도는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의 A 교수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한다는 장점을 지닌 기탁금 제도는 학교 공익의 측면에서 분명 긍정적이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단점도 존재한다. 선거에서 득표를 적게 한 후보자일수록 선거 후 기탁금을 적게 반환받기에 적은 지지를 받는 잠재적 후보자가 애초에 출마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불신과 대립 속 상생의 방향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현행 총장 선출 제도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교수협의회△직원노조△총학을 중심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세 주체는 현행 총장 선출 규정에 근거한 개선안을 개최해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교수△직원△학생은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을 마땅히 직접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총장 직선제는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지키고 개선해야 할 가치가 있다. 설캠프 총학은 이에 대해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을 우리의 손으로 뽑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자주권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언급했다. 교수협의회 또한 "직선제는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주권자의 의견을 가급적 반영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이다"며 "선거를 통해 학교 발전을 위한 주장이 공유되고 소통이 이뤄지는 건전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의 학내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직선제는 반드시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각 주체 대표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든 학내 구성원의 관심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주체 대표가 이번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나 투표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와 투표 등은 이번 사안에 대한 학내 구성원의 여론을 환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권리 있는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갖고 총장 선출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외대학보는 이번 기획 기사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이 주제에 주목하도록 하고자 한다.

학과 및 학부와 학생들 간의 소통, 유의미한 소통을 위해선.

이탈리아어과와 융합인재대학(이하 융인)에선 학사 운영과 소통 과정 중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탈리아어과의 일부 학생들은 증원 공지가 지연돼 수강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융인의 경우 전공 교류 제한과 모듈 배정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학생들에게 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이 두 학과의 대응

이 학과와 학생들 간의 유의미한 소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학사 운영과 소통 문제 현황△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학사 운영과 소통 문제 현황

이탈리아어과에선 이번 학기 진행된 수강 신청에서 증원 관련 공지가 늦어져 학생들의 학교생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이 발생했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지난 9월 3일에 'IFL 이탈리아어 A2 과목(이하 IFL 과목)의 교수에게 해당 과목의 증원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증원이 예정돼 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시간표에 추가할 것을 고려해 2학기 시간표를 구성했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 오후 10시경 조교가 "학과 교수진의 회의 결과 해당 학기 IFL 과목의 증원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글을 학과의 네이버 카페를 통해 통지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하루 남은 정정 기간 중에 시간표를 수정해야 하는 문제를 겪었다.

융인에선 불명확한 운영 체계와 학생들과의 소통 장애로 일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융인 학생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전공 교류 학점을 최대 9학점으로 제한한 상태로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학부 사무실 측의 공지 누락으로 인해 학생들은 이번 해 여름방학이 돼서야 해당 제도가 시행 중임을 공지 받게 돼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특히 테크노미디어디자인 세부 모듈 수강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전공 학점을 채우기 위해 전공 교류 제도가 필수적이었기에 갑작스러운 학점 제한 규정의 신설이 타 모듈에 비해 큰 문제가 됐다. 또한 공지 이전 이미 전공 교류 학점이 9학점이 넘는 학생들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돼 이들의 경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신입생 모듈 배정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했다. 조준형 전 융인 학생회장(이하 조 전 회장)에 의하면 '신입생 모듈 배정 시 △성적 70%△면접 20%△기타 10%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총점을 매기고 이 총점을 바탕으로 언어 모듈이 배정된다는 내용의 공지를 학교로부터 받은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전 회장은 "당시 융인 학부장에게 면접에서 어떤 점을 보는지 및 기타에서 반영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했고 '성적 100%가 맞으며 나머지 요소는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니 학생들은 편하게 면접에 응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런 외중 모듈 배정에 있어 이탈리아-EU전략 세부 모듈과 패션관광문화산업 세부 모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언어-지역학과 기타 학문을 함께 신청해 패션 관련 진로를 설계하던 학생들이 패션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아랍어통번역 세부 모듈에 배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융인 학생회는 "이번 해는 융인 학생회와 일부 융인 내 교수들의 노력으로 강제로 아랍어통번역 세부 모듈로 배정된 학생들을 희망 모듈로 이적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이는 제도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기에 추후 모듈 배정은 어떻게 이뤄질지 모르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학부가 어떤 체계로 운영되는지 학생들이 알지 못하고 운영 방식 역시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수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학생들의 중도 이탈률 또한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현성(융인·22) 융인 학생회장은 "재학 중인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에 비해 조교 인원이 충분치 않아 혼란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학교 측 입장

이탈리아어과 측은 증원이 불발돼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7일 '학생과의 대화 시간(이하 공청회)'을 마련했다. 공청회엔 △

김시홍 이탈리아 학과장(이하 김 학과장)△박문정 교수△조성윤 교수△줄리아(Giulia) 교수가 참석해 △증원 공지가 늦어진 배경 설명△이에 대한 대안 제시△학생과의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공청회에선 증원 공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처음엔 소수의 학생들만이 증원을 신청할 것이라 생각해 증원이 예정된 것처럼 공지했으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보니 인원대로 모두 증원하기엔 1학년 학생 대상 과목에 고학년들이 많아져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청회에서 김 교수는 "수요 조사 인원이 학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겨울 계절학기 과목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이고 2025학년도 2학기에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이 수강할 수 있는 IFL 과목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학생들이 원한다면 이러한 자리를 더 마련하겠다"며 향후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상술한 융인의 시안에 대해 김상수 융합인재학부 학부장(이하 김 학부장)은 "이는 교육부가 지향하는 융합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며 "학생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지만 각 모듈별 교수들의 의견이 다르고 학교의 구조 조정 계획과 연관돼 있어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학부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학교는 광역화 모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공과 이중전공의 이수 학점을 조정 중이다. 그렇기에 융인 또한 모듈 배정 원칙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공 교류 관련 혼란에 대해 김 학부장은 "완전히는 아니지만 훨씬 더 자유롭게 해주자는 방향으로 계속 회의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전공 교류 관련 혼란을 겪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전공 교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여러 상황에 의해 제한되는 교류 과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학부장에 따르면 영어통번역학부(이하 영어) 등은 폐과 존치에 따라 영미지역학이나 영어통번역학 과목을 융인이 아닌 영어에서 운영하는 상황이었기에 융인 학생이 영어 과목을 수강할 경우 전공으로 인정해준다는 개념으로 전공 교류를 운영했다. 또한 ICT&AI(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Artificial Intelligence) 세부 모듈과 융합비즈니스 세부 모듈의 경우 과건 교수 제도로 운영하기에 담당 단과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전공 교류 과목을 개설했다. 이에 따라 각 모듈별 주임교수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전공 교류를 운영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전공 교류 가능 강의에 제한이 없다는 오해를 하며 교수와 상담 없이 전공 모듈과 무관한 강의를 수강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 김 학부장의 입장이다. 융인 학생회 측 또한 "학부장이 최대한 학생들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하려고 했다"며 "지금은 혼란이 해결된 상태다"고 전했다.

모듈 관련 학생들의 의문에 대해 김 학부장은 "성적 100%로 결정했다는 정보는 옳지 않다"며 "다만 모듈 배정 시 1지망의 경우 실제로 성적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학부장은 "매년 모듈별 지원 상황이 다르기에 그때마다 교수님들이 회의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밝히며 "필요할 땐 학생들과 상의해 최대한 개선 중이다"고 전했다. 융인 학생회 또한 "김 학부장으로부터 앞으로는 모듈 배정에 있어 성적과 함께 성적 이외의 요소가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언어 모듈의 수강 인원 또한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사 운영에 있어 학생들과의 보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이탈리아어과에선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탈리아어과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IFL 과목 증원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논의하며 학과 측과 학생들이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청회에 참여한 이탈리아어과 학생들은 공청회 현장에서 학과 측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인지하고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학사 운영의 변화 및 문제 발생 시 학교와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한다면 상호 간의 오해를 최소화하며 양측의 입장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융인의 사례는 학생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측에 활발히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융인 학생회는 "학부 운영이 합의를 바와 다를 시 학생회 측에 연락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며 "비권 제도가 운영 내규로 정착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부 측과 꾸준한 소통 중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융인 학생회 측은 전공 교류 학점 제한 관련 논란을 겪은 학생 2명과 함께 학부 측과 논의 후 이를 해결했다.

이외유사한 타 학교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동대신문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이하 동국대)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열린전공학부에 대한 재학생의 의견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동국대 측은 후속조치위원회(이하 후속조치위)를 구성했다. 후속조치위는 △교무팀△단과대학 학장△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했다. 이번엔 두 번 진행된 후속조치위 회의에선 소수학과 인원 미달 보호 장치 및 사회복지학과 전공 수업 이수 지체로 인한 초과 학기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이외에도 성대신문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생회 '워너비'는 학생들과 교수 간 활발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사제 Q&A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교수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하며 교수와 학생 간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했다.

소통이 미비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체계적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학교와 학생들 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과 학교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 함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성장한 나 그리고 여유의 의미

아릴 적 부모님과 함께 베트남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하롱베이(Vinh Hạ Long)로 향하는 길에 들른 작은 식당에서 물갈이로 힘들어하던 나를 보고는 한 베트남 아주머니께서 걱정스레 배를 쓰다듬어 주시며 메뉴에도 없는 죽을 손수 끓여주셨다. 그 따뜻한 배려 덕분에 베트남은 내게 정이 가득한 나라로 각인됐고 시간이 흘러 난 우리학교 베트남어과에 입학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곧 문화를 배우는 것이기에 나는 학교를 넘어 베트남 현지에서 가서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접하며 베트남어를 습득하고 싶었다. 그래서 교내 "전략지역전문가 어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이번 해 8월까지 하노이에서 교환학생과 인턴으로 생활했다.

지난해 2학기엔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Trường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베트남 언어·문화 학교(Khoa Việt Nam học và Tiếng Việt)로 교환학생을 갔다. 난 베트남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 관광학 △베트남학 △지역학 △케론 △현대 베트남 정치 체제의 이해 등 다양한 강의를 수강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교수님이 강의실로 들어오면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반장(Lớp trưởng)의 구령에 맞춰 교수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리는 문화였다. 조별과제도 많았기에 베트남 친구들과 더 어울릴 수 있었다. 베트남어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던 난 친구들에게 밤도 자주 사주고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기도 하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교환학생 기간 동안 단순히 공부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보다 많은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싶었다. 내 역량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우리나라로의 유학을 희망하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난 하노이 소재 유학원 수십 곳에 연락해 한국어 강사로서의 고용을 제안했다. 당사에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베트남어가 유창하지 않았기에 거절하는 곳이 많았으나 다행히 한 곳에서 긍정적인 답장이 왔고 그곳에서 약 6개월간 한국어 강의를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쳐주며 그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수업 후엔 하노이 시내에서 놀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다. 우리나라로의 유학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대사관 면접이 다가올 땐 학생들과 밤새 한국어로 이야기하며 그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바랐고 그들이 우리나라로의 유학길에 오를 때면 직접 공항으로 가서 배웅하기도 했다.

지난 1학기에는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CHAM, 이하 코참) 사무국에서 인턴십을 진행했다. 첫 인턴생활을 해외에서 한다는 것이 무척 설렘과 그만큼 더욱 열심히 임하려 했다. 코참에서 근무하며 우



리나라 기업들의 권익신장과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았고 그 과정에서 우리학교 선배들을 만나 다양한 조언도 들었다.

1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베트남에 머물면서 때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짧은 인생 중 가장 보람찼던 1년으로 기억됐다. 동시에 그동안 누구보다 빠른 삶을 살아왔던 내게 베트남에서 즐겼던 조금의 여유는 새로운 시간을 선물해 줬다. 이제는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풍경도 돌아보며 여유롭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김성호(아시아·베트남어 19)

일본

<라쇼몬>

-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



인간은 마음 한구석에 모순되는 두 감정을 지니고 있다. 시간엔 도덕적 갈등 혹은 사회적 불신과 같이 인간을 둘러싼 문제가 만연해 있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일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선과 악의 경계를 오가는 존재인 것일까.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라쇼몬'은 교토의 황폐한 라쇼몬 문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하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는 악이 만연한 사회와 그 속에서 무너진 도덕적 경계 위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모호한 속에서 점점 변해간다. 굶주린 그에게 남의 물건을 훔쳐서라도 생존해야 할 이유가 있지만 동시에 양심이 그를 갈등하게 만든다. 비 오는 밤 라쇼몬 문에서 만난 한 노파는 그를 더욱 극단적인 선택의 길로 안내한다. 그 노파는 생계를 위해 가발의 재료로 시체의 머리칼락을 뽑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 시체도 생전에 다른 사람을 속여며 살았기에 본인을 이해할 것이라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생존을 위해 도덕성을 버릴 수도 있음을 깨달았고 노파의 웃을 빼앗은 뒤 사라지는 걸로 이야기는 끝이 난다.

인간의 도덕이란 무엇일까. 생존을 위해선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답은 변할 수 있다. 인간은 삶의 필요에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이를 변화시킨다. 작중에서의 노파의 행위는 우리에게 추악하게 보인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생존을 위한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다. 이를 본 하인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기준을 바꾸기로 결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다움과 도덕의 본질성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진다. 이는 상황에 따라 선도 악도 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가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하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따라 타인을 판단하며 자신도 그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삶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는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일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질 수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선 그 기준이 붕괴되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무수한 갈등 상황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가하거나 때로는 공동체의 규칙을 무시하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하인의 행위는 인간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양면적인 존재임을 시사한다.

인간의 본성은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다. 그 경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믿음에 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준 속에서 인간다움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장휘경 기자 07hwic@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7(월)	2024.11.01(금) ~ 11.15(금)
고사장 발표	2024.10.16(수) 15:00	2024.11.27(수) 15:00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예정	2024.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10.31(목) 15:00	2024.12.1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월) ~ 11.08(금)	2024.12.16(월) ~ 12.2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족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수료자 우대
바. 복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 이수트랙신설 (논문·출판연구보고서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교학과
TEL. 02-2173-3521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 9. 20(금) 09:00 ~ 9. 26(목) 16:00	2024. 11. 5(화) 09:00 ~ 11. 11(월) 16:00
면접전형	2024. 11. 2(토) 10:00부터	2024. 12. 7(토) 10:00부터

* 접수방법: ① 온라인 원서접수—② 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 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장소 확인—④ 등록금 (면접시험 응사—⑤ 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자격

1. 특별전형

가.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3월)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2. 일반전형

가.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5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모집과정 및 학과/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http://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 우편제출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입시문의

02)2173-2297



청년층 독서 위기: 책과 멀어진 세대, 청년층 독서 문화를 재조명하다

지난달 10일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에서 문학과 독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의 독서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청년층의 독서 현황△청년층 독서량 감소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층 독서 현황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층 종합독서율은 43%로 지난해 대비 4.5%p 감소했으며 종합 독서량은 3.9권으로 지난해 대비 0.6권 감소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년 독서량의 경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명형택 우리학교 도서관 학술정보팀장은 “도서관 근무 경험에 비춰 봤을 때 분명히 과거와 비교하면 도서관의 대출량 및 독서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독서량 부족 현상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독서 토론 형식의 강의를 진행하는 유주현 우리학교 독일어통번역학과 교수는 “긴 분량의 글을 읽는 것에 거부감을 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검색만 해도 간단 요약이나 일반적인 해석이 쏟아지는 시대라 그런지 시간을 들여 전체를 읽어가는 ‘독서’ 자체를 수고로운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더불어 “핵심 메시지 이해에만 국한해 독서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책의 주제만 알게 되면 책을 다 읽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청년층의 독서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외대학보에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의 독서 목적은 △학업에 필요해서(41.4%)△지식과 정보 습득을 위해서(31%)△책 읽는 것이 재미있어서(13.8%)△마음의 성장과 위로를 위해서(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학교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학업’이란 것이다. 실제로 독서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를 수강하는 우리학교 학생 A 씨는 “수업 전에 책을 읽어야 수업 때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대부분 학생들이 잘 읽어가지 않는다”며 “보통 수업 전에 △유튜브(Youtube)에서 책 요약 영상 시청△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검색챗 지피티(Chat GPT)활용 등을 통해 대략적인 줄거리만 알아보고 간다”고 밝혔다.

◆청년층 독서량 감소 원인

청년층 독서량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원인은 일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24.4%가 일이나 학업에 밀려 독서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지선(경상·GBT 24) 씨는 “책을 읽고 싶지만 △과제△아르바이트△학교수업으로 인해 독서할 시간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휴식 시간 자체가 워낙 부족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그 시간에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가시간이 독서량 감소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논문인 ‘일-생활 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은 가장 긴 반면 여가 시간은 31개국 중 29위에 그쳤다.

두 번째 원인은 매체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다. 책 외의 다양한 매체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전처럼 책을 통해 재미를 추구하거나 책에서 지식을 얻는 청년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게 됐다. 현대사회에선 영화나 게임을 통해 책보다 더 쉽고 빠르게 재미를 추구할 수 있게 됐으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정보 및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 게임△유튜브나 넷플릭스(Netflix) 같은 영상매체△포털 사이트 등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책에서 흥미 요소나 지식 정보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한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무려 23.1%에 달했다. 이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대인관계 갈등이나 일상의 역할 문제 및

건강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고위험군은 42%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외대학보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65.5%가 네이버나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다고 답변한 반면 종이책과 전자책을 모두 포함한 책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20.7%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도현(사회·정외 23) 씨는 “필요한 정보를 어떤 책의 어느 부분에서 찾아야 할지가 막막하다보니 책에서 정보를 얻는 게 힘들다”며 “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면 정확히 그 정보에 관련된 요소들만 볼 수 있어 더 애용하게 된다”고 전했다.

세 번째 이유는 청년층이 긴 글을 기피하는 현상 자체에서 나타난다.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경험한 읽기 관련 주요 활동에 대해 청년들은 인터넷 검색 정보 읽기(77.0%)나 소셜 미디어 글 읽기(42.0%) 순으로 답변했다.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는 정보나 소셜 미디어 속 글은 책을 통해 접하는 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이미지 출처: freepik.com

인해 짧고 간결한 문장에 핵심만 전달하는 이른바 ‘짧은 단위의 읽기’에 익숙해진 청년층은 긴 글을 회피하는 경향을 갖게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에는 ‘숏폼(Short Form)’의 영향도 크다. ‘숏폼’이란 △유튜브 숏츠(Shorts)△인스타그램 릴스(Instagram Reels)△틱톡(TikTok) 등 짧은 분량의 영상매체를 말한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숏폼 이용률이 일반사용자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박찬혁(서양어·독일어 23) 씨는 긴 글 읽기를 기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숏츠나 릴스처럼 짧은 영상 위주로 보다보니 해당 매체만을 찾아보게 되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도 짧고 간결한 글을 선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청년층의 독서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도서관 차원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종이책만 고집하기보다는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확충하고 이용자가 도서관을 더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개발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선 국가 전역에 걸친 공공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종이책 뿐만 아니라 전자책도 쉽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독서 모임 및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청년층의 흥미

를 끌 수 있는 △독서 모임△북토크(Book Talk)△저자와의 만남 같은 특별한 행사를 꾸준히 열어 책을 읽고 서로 공유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 리드(Nederland Lees)라는 대규모 독서 캠페인을 매년 11월에 네덜란드 전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캠페인에서는 이달의 주제를 선정해 관련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독서 관련 행사를 주최해 청년층의 독서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특별한 형태의 독서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존의 틀에 박힌 도서관과 다르게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분위기의 독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독서 공간이 ‘힙한 공간’이 되도록 청년층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 오산시 세교동의 ‘꿈두레 도서관’에선 전국 최초로 ‘독서 캠퍼지’를 운영하고 있다. 독서 캠퍼지에선 가족 혹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단칸방처럼 생긴 캠핑하우스(Camping House)에서 책을 읽고 밤을 보낼 수 있다.

교육기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기에 받은 독서 교육은 이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 때 기존의 정형화된 독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 차원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핀란드에선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는 독서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기 독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독서 관련 평가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교육과정에서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이 함께 읽은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거나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독서를 심화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학교에선 독서 동아리 활동을 평가의 일환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이 독서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 또한 물론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꾸준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처럼 시공간적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부족한 여가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실제로 평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전자책을 즐겨 읽는 장은수(C&T·투월 24) 씨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전자책을 읽다보면 낭비하는 시간도 줄고 짐도 줄일 수 있어서 애용하고 있다”며 전자책의 이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장점에 힘입어 우리나라 최대 전자책 플랫폼인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566억 원의 매출과 10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최고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언급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청년층의 독서량 감소 현상은 청년층이 깊이 있는 사고와 사고력 증진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를 자아낸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읽을 수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독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청년층이 다시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독서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연이은 폐업, 이대로 관망은가

최근 오프라인 대형마트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이후 마트 3사(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29곳이 잇따라 폐점했다. 이후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은 감소하는 가운데 실적 부진으로 수십 곳이 폐점하며 고객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다. 이에 △대형마트 폐업의 배경과 현황△폐업의 문제점과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대형마트 폐업의 배경과 현황

최근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폐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오프라인 판매를 줄이는 대신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커머스(E-commerce) 대표 기업들인 쿠팡(Coupage)이나마켓컬리(Market Kurly) 등이 빠르게 자리를 잡은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침체 양상은 식품이나 생활 등 주요 판매 부문에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이커머스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은 △다양한 할인행사△무료배송 서비스△e쿠폰 할인 판매 호조로 서비스/기타와 식품 분야에서 16.5% 증가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경우 간편식 및 신선식품 등 집합 수요가 늘면서 집 근처 편의점과 준대규모점포의 매출은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매출이 하락하며 대형마트 고전의 이유를 뒷받침했다.

일례로 부산에선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롯데마트 금정시마트 서부산점△홈플러스 가야△홈플러스 서면△홈플러스 연산△홈플러스 해운대가 연이어 문을 닫았고 최근 서면 상권 중심에 자리한 NC백화점 서면점과 수영구 대표 대형마트인 메가마트 남천점 또한 폐점했다. 부산 중동에 거주하는 A 씨는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는 옷도 사고 밥도 먹고 모임도 하면서 커피도 마시는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 공간이었다”며 “연세가 많은 분들은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마트가 사라지면 불편함이 클 것 같다”고 전했다.

◆대형마트 폐업의 문제점과 원인

이형마트의 폐업은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국유통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점포 한 곳이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을 포함해 모두 1374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홈플러스 동대천점의 경우 폐업으로 인해 그 근처에 운영하던 대형마트의 매출이 -55.15%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홈플러스 동대천점이 가지고 있던 수요를 이마트 대전터미널점이 흡수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보완업종에선 음식점 및 기타 부문의 매출이 -21.58%로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집객효과가 사라짐에 따라 주변 음식점 등의 매출이 타격을 받은 것이다. 강정규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은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 폐업은 중·장기적으로는 교통 여건이 악화되고 또 다른 생활문화 시설이 감소되거나 없어진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이로 인해 도시 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폐업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이커머스의 등장에 있다. 이커머스는 팬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엔데믹 이후에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은 막강한 플랫폼의 힘을△컬리는 신선식품을△쿠팡의 경우 로켓 배송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물류 능력을 활용하는 것과 같이 각자의 장점을 활용한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월 기준 쿠팡은 지난해 대비 매출 20% 증가 및 6개 분기 영업이익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이마트는 지난해 4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이커머스와 대형마트 간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테무(Temu)와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등의 해외 이커머스가 대형마트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에 1,000억원을 투자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3년간 1조 5,000억원을 한국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배송 경쟁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국내 통합 물류 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경우 전국 지점이라는 좋은 물류 센터 시스템이 구축돼 있음에도 새벽배송 금지 등의 규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과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대형마트 규제가 지속되는 것 또한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매체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식재료나 생필품 등 구입을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동네식료품점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46%였으며 전통재래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의 37%는 온라인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업체(이하 온라인 쇼핑몰)를 사용하고 33%는 편의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즉 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을 중소유통매체가 오롯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과 편의점 등이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수치는 해당 정책의 본래 주인공이었던 중소유통매체들이 오히려 정책의 하점으로 인해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로 해석된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대형마트 폐업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과 근처 주민들의 상권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원 상권을 설정한 후 소비 장려를 위한 상권 환경 개선 및 디자인 마케팅 사업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형유통사와 소상공인 간의 협업을 통해 축제 및 활성화 사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주차환경 개선 등 접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대형마트 차원에서 시설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 유입을 이끌어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마트 죽전점의 경우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1층 중앙 공간에 공원을 즐기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아울러 2층 아동복 매장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마트에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이를 통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펼쳤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최 씨는 SBS 뉴스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즐기는 곳도 있어 놀면서 같이 쇼핑하기 좋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례들과 같이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고객 경험을 강조한 변화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영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SBS뉴스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은 주로 편리함을 위해 구매 시 온라인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오프라인 매장에선 좀 더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새로운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휴일영업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거나 폐지한다면 오프라인 매장과 더불어 인근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의 공휴일 지정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인 새벽시간대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등 여러 규제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토론회 이후 서울 동대문구는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마트 평일휴무를 시행했고 부산 16개 구·군도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경동시장은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오히려 주말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들이 주변 전통시장의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풍부한 볼거리와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하면서 전통시장은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곳으로 변모했다. 실제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 3월 27일 경동시장을 방문해 “경동시장은 서울에서 면적이 가장 크고 △과일△수산물△채소△한약재 등의 다양한 상품군과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다”며 “최근 대형마트 휴일영업으로 대형마트 방문객이 경동시장에 추가 유입되면서 상생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형마트가 무너진다면 이를 애용했던 사람들과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의 잇따른 폐업을 멈추기 위해서 다른 업계와의 균형을 맞춰 서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형마트의 올바른 사업 계획을 통한 오프라인 유통업계의 봄날을 기대해 본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www. 시사 한 줄 토막.com

정치 '명태군 게이트', 새로운 국면으로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군 씨(이하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지난 2022년 5월 당시 대통령 당선자였던 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해주라고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주당은 해당 전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에 창원시 의창구 후보로 공천됐다고 공천 개입 의혹의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다”고 비판했다.

사회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음 해 학업 복귀를 약속한 학생들에게만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9일 40개 대학 총장들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연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동맹휴학을 승인한 것은 아니며 동맹휴학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연세대학교는 이날 바로 휴학을 승인했으며 다른 대학들도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 의정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제 '9만전자'의 꿈은 어디로, 삼성전자의 혹독한 겨울

6만 원 선까지 무너졌다. 지난 7월 11일 장중 88,800원을 기록하며 상승장구하던 삼성전자가 지난겨울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33거래일간 이어지면서 지난달 25일에는 1년 최저가인 55,700원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반도체 부문 3분기 영업이익은 3조 8,6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인 7조 300억 원을 기록한 SK하이닉스의 실적은 물론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그간 외국계 증권사를 중심으로 제기된 '반도체 겨울론'이 삼성전자의 겨울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겸 DS부문장은 지난달 8일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근원적인 기술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다”며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제 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지난달 18일 북한이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에 따른 파병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김정규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서의 이름으로 낸 입장문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되는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파병을 사실상 시인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특사 파견을 논의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돌 인권 문제, 이젠 그 불씨를 지필 때

지난달 15일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하나는 직장 내 따돌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증언했다. 이에 아이돌들의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그들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예인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케이

팝(K-POP)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아이돌들은 여전히 극도로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 이젠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만나 아이돌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자.

이정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Q1. 노동자의 범주에 해당하는 정도가 궁금합니다.

연예인이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모든 연예인에 대해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2.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한 하나의 발언으로 인해 아이돌의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돌 산업에서의 근로 계약과 일반적인 근로 계약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들의 노동관계가 회사나 특정 조직에 편입돼 회사나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연기 활동 참여나 경기 출장 등)를 제공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휘 혹은 명령을 구체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재량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1. 현행 법적 체계에서 아이돌이 법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돌이라도 소속사의 일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휘 혹은 명령 하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 아이돌의 경우엔 회사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3. 아이돌 계약에서 흔히 발생하는 '노예계약'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아이돌의 경우엔 어린 시절에 스카우트돼서 데뷔하기까지 소속사가 장기간에 걸쳐 많은 △교육△투자△훈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돌이 유명세를 타서 독립하거나 다른 소속사로 이적하게 되면 위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에 소위 노예계약에 가까운 관계 설정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Q4. 아이돌 산업에서 근로 시간과 조건이 일반적인

근로기준법과 어떻게 충돌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돌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과 일요일 휴무를 규정한 주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와는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뉴진스 하나의 모습 (출처: 노컷뉴스)

Q5. 아이돌이 법률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무엇이 있나요?

뉴진스와 같이 유명세를 얻은 아이돌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와 달리 무명 아이돌의 경우 활동에 있어 소속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재량권이 일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죠. 이런 경우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6. 아이돌 산업의 연습생 시스템이 노동 착취에 대한 문제로 규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돌 연습생의 경우 대부분 미성년인 경우가 많아 근로를 위해선 친권자의 동의를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연습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유명한 소속사에 들어가 연습생이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택합니다. 이런 점이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에 따른 노동 착취를 사실상 단속하기

가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Q7. 국내 노동법은 아이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이돌의 경우에도 연예인 노동조합과 같이 프락터 선수처럼 스스로 자기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 집단적 출연 거부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8. 국외 법률상에선 아이돌 혹은 연예인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나요?

우리의 아이돌 시스템은 과거 일본의 유명 소속사인 '요시모토흥업(吉本興業)'의 관행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죠. 다만 일본의 경우 아이돌 혹은 연예인의 노동 착취 관련 문제가 대중매체에 의해 많이 감시됨으로써 자정작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소속사가 아이돌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면 그 소속사는 블랙기업*으로 낙인이 찍혀 아이돌 스카우트이나 비즈니스가 어려워집니다. 소속사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Q9. 아이돌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이돌과 소속사 간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소속사에 들어가거나 연예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계약 관계를 분명하게 해 문제가 생긴 경우엔 계약서에 근거해 다툰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이돌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아이돌 연합이나 아이돌 노동조합 등을 스스로 조직해 집단적인 권리행사를 통한 자기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이나 노동법에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런 권리를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블랙기업: 노동착취형 착취공장 고용 시스템을 가리키는 일본의 용어

창취영 기자 07hwi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리더십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7(월)	2024.11.01(금) ~ 11.15(금)
고사장 발표	2024.10.16(수) 15:00	2024.11.27(수) 15:00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예정	2024.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4.11.01(금) 15:00	2024.12.13(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금) ~ 11.08(금)	2024.12.16(월) ~ 12.20(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력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합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장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정학금 수혜자 및 금액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 됨)
- 신입생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 - 성적우수 장학금
- 공로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 - 원우회 임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성 전액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
다. 대학원 내 학과간 교과수강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4.09.09(월) - 24.10.08(화)	24.10.31(목) - 24.11.20(수)	유엔아카데미 원서접수
서류제출	24.09.09(월) - 24.10.08(화)	24.10.31(목) - 24.11.20(수)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시간 공지	24.10.16(수) 15:00	24.11.27(수) 15:00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면접전형	24.10.19(토) 10:00	24.11.30(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4.10.24(목) 15:00	24.12.05(목)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4.10.28(월) - 24.10.30(수)	24.12.09(월) - 24.12.11(수)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상계좌 납부가능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 비즈니스 · 디지털 커머스
나. 데이터 ·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다. 엔터테인먼트 · K-컬처
라. MET(Media, Entertainment, Technology)
*MET는 유학생·순수 외국인 전형 학과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MET전공의 경우 부모의 국적이 모두 외국인인 학생만 지원 가능*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학보의
계절

화창했던 여름날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와 함께 매력적인 가을이 찾아온 지도 오래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외대학보와 맞이한 계절도 어느덧 세 번째가 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깨닫고 성장한 한 학기였다. 처음 학보사실에 방문했을 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교내 활동을 해보지 않았다. 첫 교내 활동이기에 더욱 신기하고 새로웠다. 새롭고 신기했던 만큼 외대학보에서의 여러 활동들은 내게 과제로 다가오기도 했다. 방중교육을 시작할 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고 교육을 듣다 보니 앞으로의 활동이 재밌을 것 같기도 했지만 두려움도 컸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외대학보 활동엔 생각보다 내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법조차 길이를 잡지 못해 형편없는 제안서를 매번 제출하기 일쑤였다. 지면을 가릴 것 없이 제안서 작성 자체가 정말 힘들어 내가 이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실상가상으로 미리 정해진 가족여행이 있어 마지막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무거운 감정을 뒤로하고 멋진 동료들을 보며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음으로 교육을 무시하지 못했다.

처음으로 내가 맡은 기사는 후속보도와 준기획이었다. 준기획으로는 하계졸업식을 주제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후속보도는 천원의 아침밥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두 기사를 한 번에 맡아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기도 했고 천원의 아침밥과 하계 졸업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두 곳을 동시에 취재를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결국 준 기획으로 예정된 하계 졸업식 기사를 신지 못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다. 선배 기자들의 도움으로 기사를 보완해 겨우겨우 마감을 마무리했지만 기사 한 개를 남겼다는 죄책감에 밤잠을 설쳤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로 다음 호 발행일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정말 빈틈없는 제안서를 작성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제안서를 쓰면서도 이번에는 정말 잘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따라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맡은 기획 기사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취재를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 속에서 좋은 글을 만드는 작업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기사 조판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고 내 기사를 메인에 실을 수 있게 됐다. 조판을 끝낸 후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생겼다. 물론 남은 기사도 매번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도전하며 남은 마감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외대학보에서의 경험은 동료들과 함께 실어내는 기사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값지고 뜻깊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줬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기사는 계속될 것이며 그 속에서 난 최선을 다하며 학보에 이바지할 것이다. 이번 마감도 행복하게 마무리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내가 되고 싶다.



한소영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책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을 읽고]
더 가까워진 감동, 잃어버린 가치

기술이 예술에 미친 영향은 무엇일까? 복제 기술이 발전하며 예술 작품은 원작만의 특별한 감동을 잃어버리는 걸까?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은 예술과 기술이 결합하는 현대의 흐름을 선구적으로 통찰한 철학적 저서이다. 벤야민은 사진과 영화와 같은 복제 기술이 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예술 작품의 원작이 지닌 고유성과 독창성이 사라지는 현상을 '아우라의 쇠퇴(Aura)'란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책에서 벤야민은 기계적 복제와 대중매체가 예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탐구한다. 전통적 예술 작품이 지닌 '아우라'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느낌이다. 이 아우라 덕분에 예술 작품은 고유의 권위를 가지며 감상자는 작품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예술 작품은 언제 어디서나 복제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술이 더 이상 소수의 특권층이나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에게 개방됨으로써 민주화가 이뤄졌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그는 기술적 복제로 인해 예술의 아우라가 손상되고 작품

이 지닌 고유한 가치가 희석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원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 복제를 통해 예술을 접할 때 감상자는 작품의 맥락이나 전통적 의미에서 벗어나는 파편화된 경험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마주하는 것과 대중화된 스크린 속 이미지를 접하는 경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책은 기술이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이 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복제 기술이 예술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그로 인해 '아우라의 쇠퇴'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식해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철학은 단순한 과거의 논의가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작용한다.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흐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예술의 가치를 지키고 새로운 경험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소희 기자09sohee@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인 타임'을 보고]
순간을 소중하게

만약 우리의 시간이 돈을 대신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시간으로 계산된다면 마냥 행복하게 그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영화 인 타임(In Time)에서 돈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간이 모든 것을 대체한다. 모든 인간은 25세가 되면 신체적인 노화가 멈추고 왼쪽 손목에 새겨진 시계에 1년의 유예 시간을 제공받는다. 이 시간으로 사람들은 음식을 사고 집세를 내는 등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시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시계의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그 즉시 사망한다. 이에 부자들은 풍족한 시간을 갖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 반면 가난한 자들은 하루를 겨우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노동으로 사거나 누군가에게 빌려야 한다. 만약 이도 저도 아니면 시간을 훔쳐야만 한다. 결국 시간이 인생의 전부인 그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한다.

처음 영화를 볼 땐 나는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공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정해진 인생의 길이까지 자신이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작중 인물인 윌(Will)과 그의 어머니의 비극적 사별을 보며 내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윌은 우연히 116년이라는 시간을 얻게 돼 엄마와 빈민가를 떠나 부자 동네로 갈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퇴근 후 2시간짜리 버스를 타려던 엄마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만 남았었다. 버스를 타지 못한 엄마는 윌을 만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고 윌도 이를 직감하고 달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단 몇 초 차이로 엄마는 윌의 품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 장면을 보며 시간이 없어 죽는 것은

병으로 죽는 것보다 더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전히 시간이라는 재화가 없어 숨을 거둔 사람은 찰나의 순간에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추억과 관계의 붕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복수를 계획한 윌은 부자 동네 '뉴 그리니치(New Grinich)'로 가게 됐고 부호의 딸 실비아(Silvia)와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가난한 자들에게 시간을 나눠주기 위해 싸우기 시작한다. 이 영화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분 상승의 기회는 커녕 생사를 오가는 전쟁을 매일 치러야 한다. 그렇기에 가난했던 윌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오로지 시간 훔치기였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공부나 예술과 같은 교육을 받아 출세하는 것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작중에서의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가지 않는다. 권력을 가진 자만이 영원한 젊음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나머지는 그저 죽지 않기 위해 하루살이 노동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나는 영화를 본 후 이러한 공평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영화에서 실비아는 이런 말을 한다. "가난하면 죽고 부자면 헛살죠" 이 말은 소중한 시간을 살아갈 내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 시간을 잘 쓰기 위해 난 오늘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1096호 학보를 읽고

무엇보다도 학생을 위하여

길었던 무더위가 끝나고 어느새 완연한 가을이 됐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초겨울의 쌀쌀한 추위가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날 중간고사가 끝난 우리학교의 양캠퍼스는 선선한 날씨 아래 교정을 거니는 학생들로 활기가 가득한 모습이다. 외대학보의 기자들 역시 시험으로 인한 부담이 해소된 지금 양질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한 힘을 쏟고 있을 것이다.

3면에선 외대학보 1088호에서 다룬 교내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후속보도가 이뤄졌다. 글로벌캠퍼스의 교내 셔틀버스는 이번 학기부터 입학 금지 조치를 받게 됐다. 해당 조치가 시행된 주요한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다. 그러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에 비해 운행되는 차량의 수가 현저히 적어 학생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의 가장 주된 권리인 학습권의 침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학생회와 학교 측이 시급히 의견을 조율해 셔틀버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4면에선 학생회비 운용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현재 우리학교의 각 학생회는 학생회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신입생에게 10여만 원의 액수를 납입 받는다.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회비가 학생들을 위한 복지에 이용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운용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사전 조사 미흡 △수요 조사 미흡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조항의 부재로 인해 회비 운용에 관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 부족이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 측의 의견과 사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장래산(일본 · 일언문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096호 학보를 읽고

변화의 바람으로

초가을의 따뜻한 날씨가 어느새 자취를 감추고 1년의 종착지가 얼마 남지 않은 11월 초이다. 두꺼운 옷차림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학교 인פק에 남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직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외대학보 1096호에선 △어문체전 취소 △자살 유행 해 정보△학생회비 문제 등 학내 문제와 사회적 위험으로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을 다뤘다.

3면 준기획에선 어문체전 취소에 대해 다뤘다. 어문체전의 공식 취소 사유는 참여율 저조와 행사 대관의 어려움이었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저자에 있던 각종 운영 관련 문제와 학생들의 불편함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언급했던 운영과 홍보 부족 문제는 다른 교내 행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문제이기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어문체전은 학생 간의 단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자 소속과 학과를 고취하는 행사인 만큼 기사를 통해 알게 된 △소통△운영△홍보 문제에 대해 관련 주체들이 고민을 통해 더 나은 행사를 기획할 수 있길 소망한다.

3면 후속보도에선 교내 셔틀버스의 입학 금지 조치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불편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다뤘다. 해당 기사에서 다룬 설문조사 자료는 입학 금지 조치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수면 위로 드러냈다. 특히 글로벌캠퍼스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셔틀버스에 탑승이 불가능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나 또한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교내 셔틀버스 이용 불편 문제는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인 만큼 학교 측과 동영관광 담당자의 협력을 통해 안전과 편의상의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

길기대한다. 4면에서 다룬 학생회비 운용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들려오던 논란 중 하나였다. 많은 금액을 지불했음에도 학생회의 방만한 운영으로 간식행사나 야구 관람 행사에서 피해를 보는 학생이 발생했다. 학생회비는 자율적으로 각출한 만큼 학생 만족을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과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학생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은 아쉬울 따름이다. 배려되지 않는 학생회비 문제에 대해 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길 바란다.

6면에선 생생형 인공지능과 자살 유행 정보에 대한 해결책과 상담사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기사를 엿볼 수 있었다. 해당 기사에선 자살 유행 정보 △기업 △정부 △해피에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분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학내 도움 관련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자살 유행 정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에서 나아가 학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다룬 점이 인상 깊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 개인이 위협요소를 구분하고 적합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결정은 없다. 학교 측의 셔틀버스 운영과 학생회의 행사 모두 학생 만족과 직결된 사안이다. 학생이 느끼는 불편함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는 것 역시 각 주체의 역할이다. 관련한 모든 논의가 우리학교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 외대학보 1086호에서 다룬 내용이 날갯짓이 되어 우리학교 구성원의 불편함을 해소할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

김현익(공과 · 컴공 17)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유종지미

벌써 학보사에서 열 번째 마감을 맞이하고 있다. 처음의 엉성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전 필요한 자질을 조금이나마 갖춘 느낌이 든다. 도움을 받던 기자에서 도움을 주는 기자로 변모하는 자신을 보며 기사를 위해 흘린 땀방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어렵듯이 느낀다. 옛날에는 어색했던 학보사 동기들도 이제 내 삶의 중요한 활력소가 된 것 같다. 중간고사 기간이 끝난 후 오랜만에 발행된 이번 1097호의 외대학보에선 학내 주요 사안들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면 기획에서는 우리학교의 브랜딩(Branding)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학교는 최근 학생증 디자인 공모전과 마스코트(Mascot) '부우(Boo)'를 활용해 대학 브랜딩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굿즈(Goods) 종류와 온라인 판매의 한계나 SNS 구독자 수 부족 등에서 경쟁 대학들에 비해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굿즈의 온라인 판매 확대와 SNS 콘텐츠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으며 대학의 본연 가치인 '언어적 다양성과 글로벌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도 요구된다. 우리학교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브랜딩 전략이 수립될 수 있길 바란다.

5면 기획에선 학과 및 학부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강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탈리아어과는 수강 신청 시의 증원 공지 지연으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으며, 이에 공청회를 열어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융합인재학부는 전공 교류 학점 제한과 모듈 배정 기준이 불명확해 일부 학생들이 불편을 겪었고 학생회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다. 두 사례는 모두 학과와 학생

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사례이며 앞으로 다른 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면 인물에선 정신동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정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 교수는 이공계에서 시작해 처음에는 변리사를 목표로 법학을 접했고 법의 실용성과 방대한 체계에 매료되어 우리학교 법학과로 입학했다. 이후 학부 조교로 연구 경험을 쌓으며 법학자로서의 길을 확립했고 독일 유학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비자 권익과 법률 개선에 주력했다. 현재는 리걸테크(Legal Tech)의 발전 가능성에도 관심을 두며 법률 소비자와 기술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는 등 왕성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학도를 꿈꾸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외대학보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더욱 확고히 하는 기회를 얻길 희망한다.

이번 마감도 무엇 하나 쉬운 것은 없었다. 편집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든 기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항상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놀랍고, 한편으로 고마운 마음뿐이다. 처음 들어왔을 때 만큼의 감동은 없지만 이제 익숙함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그 공간을 대체하고 있다. 내가 앞으로 학보사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다. 다만 열정의 불꽃이 꺼지기 전까지 학보사실의 모두와 함께 끝까지 가고자 한다.

이승원 부장 08seungwon@hufs.ac.kr



각자가 정의(定義)한 정의(正義)

총장 선출 제도의 변화에 관한 논의가 온 캠퍼스를 휘감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학교 법인 동원육영회와 교내 구성원 간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우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또 외대학보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논의하기 전 '정의'에 대한 논의부터 하고자 한다.

각 개인은 각자가 정의(定義)한 각자의 정의(正義)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로의 정의는 Δ 조화 Δ 충돌 Δ 협력한다. 이러한 일련의 상호작용은 특정한 사회를 구성한다. 이러한 섭리는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제 사회에까지 적용된다. 그러니만큼 이러한 섭리는 우리학교란 사회 또한 피해 갈 수 없는 노릇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정치'라고 부른다.

이번 총장 선출 제도 변화에 따른 동원육영회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갈등 또한 이러한 섭리이겠다. 각자의 정의에 따라 모인 두 집단이 각자의 정의를 관철하기 위해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가 생각하는 '옳은 것'이 무엇이던간에 두 집단 모두 자신이 정의 내린 각자의 총장 선출 제도란 개념을 옳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그 결과물과 상관없이 총장을 선출하는 제도는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것이 현재 우리학교를 구성하는 뿌리인 '제2건학 선언'의 기치이며 근 20년간 이어온 학내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이를 위해선 모든 학내 구성원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외대학보는 해당 기사에서 두 정의가 충돌하는 모습을 글로 담아내며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술한 것과 같이 모든 사회는 정의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일련의 '정의의 충돌' 또한 우리학교란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외대학보의 이번 사안에 대한 궁극적인 소망은 일련의 충돌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전'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런 한편 누구의 편에도 서 있지 않은 외대학보는 학내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만을 유일한 정의로 믿고자 한다.

앞으로도 외대학보는 이러한 믿음에 근거에 학내 모든 권력을 향한 감시를 이어가고자 한다. 지난 1094호에서도 말했듯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대학보가 갖는 이러한 소망과 믿음은 결국 이 글을 읽는 독자를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정의다. 그러니만큼 다시 한번 외대학보는 이번 사안에 관심을 두길 독자에게 호소한다. 그것이 외대학보가 가진 '펜의 힘'이자 이번 4면 기획 기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남우현 편집장 07woohyun@hufs.ac.kr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나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7woohyu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남우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부엉이 메신저



중간고사 나만 망했어?

-익명-

학기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남은 절반도 같이 힘내봐요.

-익명-

아니 아직 종강을 안했다고? 거짓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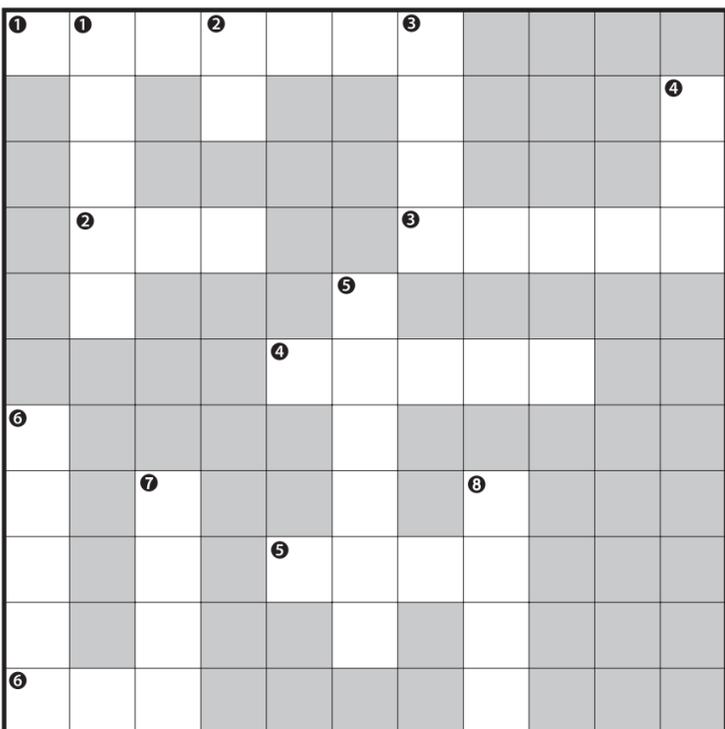
-익명-

페이커는 신이야

-개강평-



십자말풀이



가로

1. 지난 9월 27일 0000000 제2교사 CUF520 준공식이 개최됐다. (2면)
2. 케이팝 산업이 성장하는 가운데 000 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면)
3. 지난달 진행된 대동제에서 초대 가수 00000는 '걸스 네버 다이' 등의 공연을 선보였다. (2면)
4. 최성은 폴란드어과 교수가 00000 폴란드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2면)
5. 지난달 진행된 대동제에서는 우리학교 응원단 0000와 함께하는 응원제가 진행됐다. (2면)
6. 정신동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000 권의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12면)

세로

1. 00000과에서는 증원 공지가 지연돼 수강신청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5면)
2. 소설가 00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면)
3. 최근 오프라인 0000 페스티벌이 이어지고 있다. (8면)
4. 그룹 000의 멤버 하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증언했다. (9면)
5. 지난달 진행된 국제여름학교에서는 오종진 튀르키예 · 00000학과 학과장이 환영사를 진행했다. (1면)
6. 우리학교 00000는 지난달 11일 'HK+사업단 2017-24 워크숍'을 개최했다. (1면)
7. 최근 0000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8면)
8. 우리학교 0000로는 부엉이 '부우'가 있다. (3면)

※피출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이메일과 교환권을 드립니다.

소비자 권익의 수호자 정신동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다



정신동(법·04)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교수(이하 정 교수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학과 겸임교수와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우리학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 교수는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한국민사법학회 판례 연구회와 한국신탁학회 추계학술대회 등의 여러 학술대회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우리학교 법학과 학생이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 법전원 교수로서 우리학교에 돌아온 그를 만나보자.

Q1. 우리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첫 대학을 이공계열로 진학했습니다. 거기서 △공학△과학△수학과 관련된 전공 수업을 많이 수강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던 중 변리사란 직업을 알게 됐는데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연과학과 공학뿐 아니라 법학에 대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변리사를 목표로 하기 전에 법학이 어떤 학문인지 경험해 보고 싶어서 민법총칙과 헌법 수업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특히 민법 수업을 들었을 때는 머릿속에서 종이 울리는 듯한 전율이 느껴질 만큼 민법이 정말 재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계약△권리능력△무효와 취소△소행위능력 같은 개념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법학을 더 깊게 접할수록 결코 가볍게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아니란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 방대한 양과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법학을 전공으로 배워보고자 다시금 열심히 수능 준비를 한 후 우리학교 법학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 시절 어떤 학생이셨나요?

1학년 2학기를 마친 당시 민법 교수님께서 학부 조교로서의 근무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후 2학년 2학기부터 법학 연구 보조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석·박사 과정생들의 분위기를 느껴보라며 대학원 수업도 청강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게 4학년 때까지 열심히 법학 연구를 도와드렸습니다. 다른 동아리나 비교과 활동은 못 했고 충실하게 어문계열 및 법학 과목을 들으며 남는 시간은 오롯이 교수님의 연구와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었죠. 특히 가정형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교수님께서 직접 학비를 지원해 주시기도 해 큰 은혜를 입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Q3. 우리학교 법학과 학생에서 이제는 법전원 교수로서 모교의 후배들을 가르치게 됐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우리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을 때 엄청난 활력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약 8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며 마치 레이저를 쏘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런 모습에서 20년 전의 제 자신이 다시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미어캣(Meerkat)처럼 저를 쳐다보는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부실하게 준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해야겠다는 열망이 더욱 커져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짐을 했습니다.

Q4. 법학 교육 및 연구직으로 진로를 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학부 조교로서의 연구 보조 경험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당시 저는 조교로 일하며 여러 IT 기업들의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찾아내는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무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교수님께서 제 열정을 높이 평가해 학자의 길을 권장해 주신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 민법 학자로서의 진로 결정을 제가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죠.

Q5. 소비자 권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대 법학의 성립 과정에서 왕권과 소수의 권력자로부터 법에 의한 지배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18세기에 근대적 법학이 출현한 후 20세기 산업혁명 과정에서 약자 계급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법과 소비자법이 등장했습니다. 특히 민법과 소비자법을 함께 연구하는 이유는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에서 나타나는 지위 불균형 문제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Q6.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당시 지도교수님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독일 법학의 거장으로 알려진 사비니안 학자는 로마법 전문가였는데 그는 독일 법학의 높은 수준을 창출하기 위해 로마법을 연구했습니다. 즉 독일 법학의 발전을 위해 로마법을 깊이 탐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나라 법학의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는 바스한 취지를 갖고 있었기에 그 뜻을 이어받아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Q7.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진행했던 연구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나 정책 개선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비자와 관련된 △국회 소비자법 개정 작업△여러 하위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사업△행정부 고시 제정에 깊이 관여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했지만 특히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8. 게임물관리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이 교수님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중독성△청소년 유해성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고 우리나라에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온라인 게임 규제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게임이 높이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도 부당한 피해를 막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선 많은 게임 콘텐츠가 활발히 출시되지만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획기적인 성장을 이루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처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이는 정당한 게임 플레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활동에선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총괄적 역할을 경험했습니다. 소비자법을 주전공으로 삼고 있다 보니 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연구에도 참여하며 더욱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Q9. 교수님이 생각하는 법학도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인가요?

법학은 천재가 하는 학문이 아니라 성숙한 어른이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은 △깊이 고민하고 △많이 생각하고△많이 읽는 학생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춘다기보다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학문이기엔 단지 어렵거나 양이 많다는 이유로 주눅 들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과정과 같아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결국 정상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등산에 소질이 없다고 격정할 게 아니라 꾸준히 △고민하고△생각하고△읽으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즐기며 지속해 나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Q9-1. 교수님이 생각하는 법학 공부의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시험을 쳐야 한다면 판례 위주로 공부해야겠죠.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시험은 합격할 수 있으나 기초공사가 그만큼 무너지게 됩니다. 기초를 단단

히 하기 위해선 조문과 그 조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대위권이란 제도는 왜 있지?" 또는 "손해배상범위는 왜 여기까지이지?"와 같은 그 조문들이 왜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개 중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Q10. 학과 관련된 최신 현안이나 경향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변호사법과 리걸테크(Legal Tech)*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고소장△계약서 작성△법률 상담 등에서 변호사 역할의 많은 부분을 대체하며 새로운 법률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선 이러한 기술의 활용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법률 시장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법이 주전공인 제 입장에선 이러한 변화는 법률 소비자들에게 접근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걸테크 기업과 변호사 업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점점을 찾아가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 중입니다.

Q10-1. 판사나 검사와 같이 법조 관련 공직도 대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판사나 검사도 대체되진 않겠지만 이와 같은 영역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내놓은 결과물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기에 규범적 판단은 결국 인간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1. 법학 연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학교 법전원에는 진심을 다하는 지도 교수님들이 포진해있다는 점에서 자료로의 진학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걸테크(Legal Tech)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법률 서비스를 정보기술(IT)이나 인공지능(AI)을 적용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기술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9.25(수) ~ 10.08(화)	2024.11.06(월) ~ 11.20(수)
고사장 발표	10.16(수) 15:00	11.27(수) 15:00
면접전형	10.19(토) 10:00 예정	11.30(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1(목) 15:00	12.12(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4(월) ~ 11.08(금)	12.16(월) ~ 12.20(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접수 시기에 따라 특별전형은 1차모집, 일반전형은 2차모집으로 보편 됩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국내외에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다.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라. KFL 문화 간 소통 전공(협동과정)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급 학기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학과인 경우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육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가.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차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작성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문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인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적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8) 재직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인당 1장 이상)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명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 인증 또는 한국영사의 공증서(확인)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중·고교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가산점 부여)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해외에 계시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면접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화상면접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서류제출 시 교차처 문의 바랍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가. 장학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 (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논문 (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 (28학점 이수), 추가학점 (32학점 이수)
다. 장학금·생각우수/순수외국인/통문/근로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 (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9)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과(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4.09.23.(월) ~ 10.04.(금)	2024.11.04.(월) ~ 11.15.(금)
면접전형	2024.10.19.(토) 10:00	2024.11.30.(토) 10:00
합격자 발표	2024.11.01.(금) 16:00 예정	2024.12.13.(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4.11.04.(월) ~ 11.08.(금) 예정	2024.12.16.(월) ~ 12.20.(금) 예정

◆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교육 •스페인어교육 •역사교육 •수학교육
모집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어교육 •일본어교육 •일반사회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교육 •중국어교육 •유아교육

◆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외국대학, 독학자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 이상 이수자

◆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 접수방법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어플라이 Uwayapply.com)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